

나주 혁신도시 미래 가치 극대화 머리 맞댄다

오늘 시민토론회 개최

한전공대·사립고 유치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에너지 교육특구 추진
원도심과 상생 발전 등
정주여건 개선 심층 논의

나주 혁신도시 미래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한전공대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립고 유치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공을 들이는가 하면, 에너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을 발굴,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 정책기조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주여건 개선 사항=나주시는 13일 오후 2시부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시민토론회를 갖고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시즌 2)'를 위한 지역사회의견 수렴에 나선다.

특히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 정책 방향, 혁신도시 복합문화체육센터(지하 3층·지상 7층) 건립 방향 등을 설명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전공대 건립과 관련, 포항공대 정중식 교수의 포항공대 설립 과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한전공대가 어디에 들어설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나주시 제공〉

앞서, 강인규 나주시장은 "혁신산단에 입주할 에너지신기술실증센터와 나주혁신도시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나주'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팔을 걷어 부쳤다.

나주시는 방과후 학교나 영어캠프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교육지원센터 설립 ▲에너지교육특구 추진 ▲혁신도시 사립고 설립 유치 ▲나주·광주 간 고교 공동제원제 등을 공약으로 삼아 최우선 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개최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는 스마트에너지캠퍼스 구축, 에너지밸리 거리 조성 등 '에너지 교육 인프라'를 2021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에너지 인재 및 진로직업 체험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나주공고를 마이스터 고로 전환하는 등 '에너지 융복합 교육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통·첨단 산업 공존=시너지 효과 노려=나주시는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나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

행보도 강화하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나주목 관아, 읍성 4대문 복원사업, 숲채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이 공존하는 지역 개발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빛가람 콘텐츠 타운'을 조성하는데도 적극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어우러지면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나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게 나주시 구상이다.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최근 나주 영산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던 주민참여 예산학교.

〈나주시 제공〉

나주시 '찾아가는 예산학교' 20일까지 운영

나주시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올해 (새지역미래연구원 참여예산센터에 위탁,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바뀌어 주민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예산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됐다.

예산학교는 14일 금남동 나비센터 준비관(오전 9시30분), 산포면복지회관(오후 2시), 20일(오후 6시30분) 빛가람주민센터에서 열린다.

주 교육내용은 ▲지방예산의 이해 ▲참여예산 우수활동 사례 ▲참여예산 제안서 작성절차 및 편성흐름도 등이며 예산에 대한 기초 개념 정립과 참여예산위

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수료한 시민들에게는 수료증, 수료자는 향후 주민참여예산위원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나주시는 12일 오후 5시부터 금성고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은 오는 8월 31일까지 읍 면 동사무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 나주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접수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기획예산실(☎ 061-339-8243)로 문의하면 된다.

/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나주시의회의 제 200회 제 1차 정례회 장면.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조례안 26건 통과

나주시의회는 최근 제 200회 제 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총무·경제안전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 활동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청

또 2016회계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한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내년도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 운영 관련 조례안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조성 ▲시민 안전보행 운영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등

26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원들은 또 다도도레마울의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안동하회마을에서 비교 견학을 실시했다.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의원들은 혁신산단·빛가람전망대(호수공원)·천연색소 산업화지원센터·친환경 광역농업단지 등을 둘러봤다.

의원들은 아울러 가뭄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장기적 대응책,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실현 방안, 광역자원봉사사업 운영 정상화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나주=손영철기자 ykson@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이달 준공

전국 두번째...유통구조 혁신·소비 활성화 기대

농산물의 유통구조 혁신에 기여할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 산포면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친환경 농산물 센터 건립은 정부의 제 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에 착공,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며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광주의 수도권 물류센터에 이어 두번째이다.

센터는 총 사업비 27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3644㎡(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집배송장·저온저장고·선별포장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나주시는 친환경 농산물 센터가 친환경 농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조직화와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kson@



준공을 앞둔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센터. (위) 강인규 나주시장이 최근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센터를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나주시 제공〉

문화예술 명품도시 정읍, 날개를 달다!

연지아트홀

Yeonji Art Hall

개관식 및 기념공연

개관식 2017. 7. 21(금) 18:30 연지아트홀 (정읍시 중앙로 73)
주최/주관 정읍시

개관 공연

7. 21(금) 19:20 아르스 오케스트라 협연	7. 22(토) 19:00 이미연 피아노 독주회
7. 23(일) 19:00 라스 앙상블 연주회	7. 26(수) 19:00 창작연극 순정이 블루스
7. 27(목) 19:00 시립합창단	7. 29(토) 15:00 / 17:00 어린이 뮤지컬 년 특별하단다

•관람료: 무료
•관람예약 - 7. 21(금) 당일 선착순 무료입장 가능
- 7. 22(토) ~ 7.29(토) 티켓링크 사전관람예약 www.ticketlink.co.kr (1588-7890)
•예약기간: 2017. 7. 13~7.28
•문의: 정읍시청 문화예술과(063.539.5174)

기획전시 7. 21(금) ~ 29(토) 10:00 공예작품전시